

#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교육환경, 실습교과목 만족도 및 전공 만족도와의 융합적 관계

신승옥\*  
광주보건대학교 간호학과

## Relation among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Clinical Practice Course Satisfaction and Major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Seung-Ok Shin \*

Department of Nursing, Gwangju Health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이 인지하는 임상실습 교육환경, 실습교과목 만족도 및 전공 만족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일개 지역의 간호학과 118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2017년 9월 자료수집을 하였고, 기술통계와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임상실습 교육환경의 평균은 3.32±0.41점, 실습교과목 만족도의 평균은 3.88±0.55점, 전공만족도 평균은 3.99±2.30점이었다. 임상실습 교육환경과 실습교과목 만족도는(r=.586, p=.000)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실습교과목 만족도와 전공만족도(r=.560, p=.000), 임상실습 교육환경과 전공만족도는(r=.530, p=.000)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각 변수간의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후 세부영역에 따른 연구를 통해 임상실습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실습교과목과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효과적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키워드** : 임상실습 교육환경, 실습교과목 만족도, 전공 만족도, 간호대학생, 임상실습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the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clinical practice course satisfaction and the major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included 118 nursing students in one area.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in September 2017, and data analysis was descriptive statistics and Pearson's correla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 average of the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was 3.32±0.41, the average clinical practice course satisfaction was 3.88±0.55 and the average level of satisfaction was 3.99±2.30. Clinical Practice Environment and Clinical Practice Course Satisfaction was (r=.586, p=.000), and the Clinical Practice Course Satisfaction with Major satisfaction was (r=.560, p=.000),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and Major Satisfaction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r=.530, p=.000). In order to increase resilienc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clinical practice environment and the major satisfaction through a detailed study.

**Key Words** :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Clinical Practice Course Satisfaction, Major Satisfaction, Nursing Students, Clinical Practice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교육 관점의 변화로 졸업생의 학습 성과에 맞는

간호역량에 기반한 교육과정 개발을 추구하고 있다[1]. 간호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질적인 간호교육이 수반되어야 한다. 간호인증평가원에서는 성과중심의 시스템을 갖추고 간호역량을 개발하고 교육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대학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2]. 특히 역량에 기반한 교육을 위해 임상실습은 중요한 교육과정이다.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 1,00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졸업 후 간호사 시험을 볼 수 있다. 임상실습은 이론적 지식을 적용하여 통합적으로 사고하고, 실무현장의 임상술기의 기술 습득이 가능하여 간호대학생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간호역량을 위한 잠재력 능력을 개발이 가능하다[3]. 간호인증평가원에서는 효과적인 임상실습을 위해서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 간호와 간병통합서비스 운영병동, 특화병원과 시설, 지역사회기관’ 등 전공에 맞는 실습기관 확보를 제시하고 실습기관과의 협력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4]. 이러한 간호대학생의 다양한 전공별 임상실습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을 통해 임상수행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다[5]. 임상실습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상실습 교육환경(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CLE)이 매우 중요한 학습요소이다. 임상실습 교육환경은 이러한 총체적 간호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다[6,7].

임상실습 교육에 있어 학습환경은 간호관리자 및 의료인 태도와 지도, 직원과의 관계, 병동 및 병원분위기에 따라 영향을 미치며 간호대학생과의 상호작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장소이기도 하다[8-10]. 이러한 학습환경을 통해 임상적 판단을 통한 의사결정, 비판적 사고기술을 할 수 있다[11]. 또한 인지된 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임상실습을 통해 전문기술과 태도를 습득할 수 있으며 간호사로서의 역할 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12]. 그러나 최근 환자의 권리와 안전의 문제로 실습기관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직접 간호행위를 실습하기보다는 관찰과 설명으로 대체하고 있어 실습교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13].

전공의 만족도는 자신의 진로와 직업을 비교하여 소속된 전공의 만족도를 말한다[14]. 전공의 만족도가 높으면 학교생활의 적응력이 높아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공만족도가 낮으면 대학생활도 부적응하게 되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기도 한다[15]. 전공의 만족도는 다양한 요소가 존재할 수 있으나 간호학과의 특성상 많은 시간의 임상실습 교육을 이수해야하는 특성이 있다. 특히 임상실습 교육환경에 대한 인식도가 낮으면 실습의 만족도가 떨어진다[16]. 그리고 임상실습 교육환경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가 가중되면 자신감이 상실될 수 있다[10]. 이러한 요소는 전공의 만족도를 저하하는 요인이

된다.

이에 임상실습 교육환경과 실습교과목 만족 및 전공만족도가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고 임상실습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임상실습 교육환경과 실습교과목 만족도 및 전공만족도와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 1)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교육환경, 실습교과목 만족도 및 전공만족도를 파악한다.
- 2)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교육환경과 실습교과목 만족도 및 전공만족도와의 관계를 파악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교육환경, 실습교과목 만족도 및 전공 만족도와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일개 지역에 소재한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 수는 G\*power 3.1.9 프로그램으로 산출하였고,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유의수준  $\alpha$ 는 .05, 검정력(1- $\beta$ )= .80, 효과크기는 0.05로 최소 표본의 수는 84명이었다. 본 연구에서 120부를 배부하였고 118부가 수거되어 최소 표본수를 만족하였다.

### 2.3 연구도구

#### 2.3.1 임상실습 교육환경 측정도구

임상실습 교육환경 척도(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scale)는 간호대학생이 인지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Dunn과 Burnett이 개발한 것을 Han이 수정하고 보완한 척도를 이용하였다[11,16]. 5개의 하위영역으로서 3문항 ‘직원과 학생의 관계’, 3문항 ‘병동의 분위기’ 5문항 ‘간호관리자의 수행’, 4문항 ‘환자와의 관계’ 4문항 ‘학생의 만족’ 등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중 3문항은 부정적인 문항으로서 역환산하였다. 문항 각 항목은 5점 Likert

식 척도로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로 하였다. Han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4$ 이고[16],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 = .85$ 이었다.

**2.3.2 실습교과목만족도 측정도구**

실습교과목의 만족도는 Cho와 Kang이 개발한 임상실습 만족도 측정도구 중 Lee등이 수정하고 보완한 도구를 이용하였다[17,18]. 이중 실습환경을 표현한 문항을 제외하고 실습교과목과 관련된 3문항을 선별하여 측정하였다. 각 항목은 5점 Likert식 척도로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로 점수화하였다.

**2.3.3 전공만족도 측정도구**

전공만족도는 단문항 항목으로 5점 Likert식 척도로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로 하였다.

**2.3.4 자료수집 방법 및 연구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7년 9월 6일-13일에 배부하여 수거하였다. 사전에 연구에 대한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지 작성에 동의한 학생을 참여시켰다. 자료는 비밀보장과 연구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설명하였다. 자료는 누출방지를 위해 코딩하여 본 연구자가 보관하고 이후 폐기 할 것이다.

**2.3.5 자료분석 방법**

자료분석은 SPSS/WIN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전공만족도는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임상실습 교육환경, 실습교과목 만족도, 전공 만족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임상실습교육환경, 실습교과목 만족도 및 전공 만족도와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hronbach’s  $\alpha$ 로 분석하였다.

명(23.75), ‘보통이다’는 25명(21.2%), ‘만족하지 않는다’ 2명(1.7%) 순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18)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9	7.6
	Female	109	92.4
Major Satisfaction	Very satisfied	28	23.7
	Satisfied	63	53.4
	Moderate	25	21.2
	Unsatisfied	2	1.7
	Never unsatisfied	0	0.0

**3.2 임상실습교육환경, 실습교과목 만족도, 전공만족도**

본 연구대상자의 임상실습 교육환경의 전체평균은 Table 2와 같이 3.32±0.41(5점 만점)점이며, 하위영역을 보면 학생만족은 3.75±0.57점이었고, 환자와의 관계는 3.49±0.57점, 간호관리자의 수행 3.39±0.57점, 직원과 학생의 관계는 3.10±0.76점, 병원 분위기는 2.86±0.66점 순이었다.

실습교과목 만족도는 Table 2와 같이 3.88±0.55점이었고, 전공만족도는 3.99±2.30점 이었다.

Table 2.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Clinical Practice Course Satisfaction, Major Satisfaction (n=118)

Variables	M±SD	Min	Max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3.32±0.41	2.33	4.63
Student satisfaction	3.75±0.57	2.50	5.00
Patient relationships	3.49±0.57	1.67	5.00
Nurse manager commitment	3.39±0.57	2.00	5.00
Hierarchy and rituals	2.86±0.66	1.00	4.33
Employee-Student relationship	3.10±0.76	1.50	5.00
Clinical Practice Course Satisfaction	3.88±0.55	2.67	5.00
Major Satisfaction	3.99±2.30	2.00	5.00

**3.3 임상실습교육환경, 실습교과목 만족도, 전공만족도와의 상관관계**

각 측정변수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이 분석결과 임상실습 교육환경과 실습교과목 만족도( $r=.586, p=.000$ ), 전공만족도와( $r=.536, p=.000$ )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실습교과목 만족도와 전공만족도는( $r=.560, p=.000$ )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이 여학생은 109명(92.4%)이고, 남학생은 9명(7.6%)이다. 전공만족도에서 ‘만족한다’는 63명(53.4%), ‘매우 만족한다’는 28

Table 3. Correlation among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Clinical Practice Course Satisfaction and Major Satisfaction (n=118)

Variables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clinical practice course satisfaction	Major satisfaction
	r(p)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1		
clinical practice course satisfaction	.586(.000)	1	
Major satisfaction	.536(.000)	.560(.000)	1

#### 4. 논의

본 연구는 임상실습 교육환경에 대한 인식과 실습교과목 및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함으로써 임상실습 교육환경에 대한 실태를 알아보고 실습환경을 개선하고자 연구되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교육환경에 대한 인식은 평균 3.32점으로 Kim과 Jang는 3.16점, Cho와 Kang의 연구에서의 평균은 3.12점으로 유사하여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다[15,19]. 임상실습 교육환경에 대한 인식을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병원의 분위기 영역의 점수가 2.86점으로 가장 낮았다. ‘간호대학생이 질문없이 간호사의 지시에 따르기를 바란다’, ‘수간호사는 간호대학생을 학습자라기보다는 인력으로 생각한다’, ‘이 병동은 너무 관행적이다’ 에 대한 3문항으로 구성된 내용으로 실습병동의 조직문화를 반영하여 학생들이 관습적이기를 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16]. Cho와 Kang의 연구에서도 2.89점으로 연구되어 본 연구와 유사하였지만, Kim과 Yang의 연구에서는 3.07점으로 연구되어 본 연구와 차이가 있었다[10,19]. 각 연구마다 임상실습 교육기관이 달라 병동에 대한 분위기를 인식하는 것이 개별 학생마다 다를 수 있다.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을 통해 대상자에게 적용해볼 수 있고 이로 인한 지식과 경험을[20]. 습득하는 학습의 과정을 겪는다. 하지만 경직된 분위기에서는 간호전공 이론을 적용하기 어려우며, 실습에 대한 자신감보다는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다. 간호대학생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현장지도자에게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을 습득

하기를 바란다[21]. 하지만 상호작용하지 못하는 실습환경은 자신에 대한 정체성과 현장의 적응력을 떨어지게 함으로서 실습교육의 학습효과를 떨어지게 한다. 위계적인 병동에서는 간호사의 직장 내 스트레스가 증가한다. 직장 내 애증의 관계가 형성되어 자신의 업무하고 가르치면서 고분군투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병동의 경직된 조직문화속의 병동분위기는 간호사 자신의 마음의 상처가 되고 자존감이 저하되며 우울 등이 발생하는 등 심리적, 신체적 증상으로 표출되기도 하며 이로 인해 병원을 그만두는 경우가 적지 않다[22]. 따라서 위계적이고 경직된 병동분위기를 개선하여 간호대학생과 의 원활하게 소통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임상실습 교육환경은 실습교과목 만족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실습교과목 만족도는 본 연구에서 3.88점으로 Kim의 연구에서는 3.30점으로 본 연구가 약간 높았으며[23], Lim과 Jo의 연구에서는 3.94점으로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24]. 실습교과목 만족도에는 ‘학습 진도에 따른 새로운 경험’, ‘단순학습보다는 실제위주의 실습’, ‘학교 강의내용이 실습에 반영’ 등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8]. 임상실습 교수자는 임상실습 교과를 구성 시에는 이론의 학습 진도에 따라 구성하는 등의 이론과 실습의 효과적인 배치가 필요하다[25]. 또한 기관의 현장지도자와 임상실습 교과목에 대한 협의를 통해 실습지도에 대한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공만족도는 임상실습 교육환경과 실습교과목 만족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Kim등의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만족도에서 실습장소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나 실습교육에서 충분한 실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방치된 느낌을 받는다고 하여 학생들이 가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25]. 이는 임상실습 교육환경에서 지도 받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간호대학생의 지식과 경험의 습득의 동기를 저하시킬 수 있어 지속적인 현장지도자와의 협의가 필요하다[26]. 임상실습의 다양한 스트레스가 직업에 대한 정체감을 갖을 수 있고 실습만족도에 차이를 보일 수 있다[26].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실습만족도 및 자아존중감과 관계가 있으며, 전공만족도가 높으면 직업에 대한 정체감이 높아질 수 있고, 임상실습 교육환경에 대한 인식이 낮으면 임상실습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다. 전공에 대한 불만족이 임상실습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임상실습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이어져 실습에 대한 거부감과 이후 간호사로서의 진로선택에 영향

을 줄 수도 있다[27].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교육환경, 실습교과목 만족도 및 전공 만족도를 파악함으로써 실습교과목 및 임상실습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임상실습 교육환경의 세부적 하위영역별로 조사함으로써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개선의 필요성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실습교과목을 간호교육목표와 간호역량에 맞게 재배치하여 교과를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감을 갖을 수 있고 이후 간호사로서의 업무 만족과 정체성을 갖을 수 있다. 최근 간호학과와 수는 급격히 증가하지만 현장실습 기관의 교육환경 변화는 서서히 진행되고 있어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일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일반화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이후 임상실습 교육현장이 비슷한 규모의 기관별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REFERENCES

- [1] Y. I. Park et al. (2013). An identification study on core nursing competency.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9(4), 663-674.  
DOI : 10.5977/jkasne.2013.19.4.663
- [2]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2013). *Specify the colleges four-year term of study screening*. KABON. <http://kabone.or.kr>
- [3] J. W. Park & N. S. Ha. (2003). Nursing students' Clinical Experiences. *The Journal of Korean Acad Psych Ment Health Nurs*, 12(1), 27-35.
- [4]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2017). *2017 years The second half nursing education evaluation manual*. KABON. <http://kabone.or.kr>
- [5] J. Song & M. Kim. (2013). Study on clinical education for nursing in hospitals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9(2), 251-264.  
DOI : 10.5977/jkasne.2013.19.2.251
- [6] D. Chan. (2001). Development of an innovative tool to assess hospital learning environments. *Nurse Education Today*, 21(8), 624-631.  
DOI : 10.1054/nedt.2001.0595
- [7] S. E. K. Edgren, A. R. Starkweather & L. D. Ward. (2008). The integration of simulation into a clinical foundations of nursing course : Student and faculty perspectives.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Scholarship*, 5(1), 1-16.  
DOI : 10.2202/1548-923X.1603
- [8] I. Papp, M. Markkanen & M. von Bonsdorff. (2003). Clinical environment as a learning environment : student nurses' perceptions concerning clinical learning experiences. *Nurse education today*, 23(4), 262-268.  
DOI : 10.1016/S0260-6917(02)00185-5
- [9] A. K. Lee, H. S. You & I. H. Park. (2015). Affecting factors on stress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1(2), 154-163.  
DOI : 10.1111/jkana.2015.21.2.154
- [10] E. Y. Kim & Yang, S. H. (2015). Effects of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on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anxiet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1(4), 417-425.  
DOI : 10.1111/jkana.2015.21.4.417
- [11] S. V. Dunn & P. Burnett. (1995). The development of a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scal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2(6), 1166-1173.  
DOI : 10.1111/j.1365-2648.1995.tb03119.x
- [12] K. Midgley. (2006). Pre-registration student nurses perception of the hospital-learning environment during clinical placements. *Nurse Education Today*, 26(4), 338-345.
- [13] H. K. Hur, S. M. Park, Y. H. Shin, Y. M. Lim, G. Y. Kim, K. K. Kim, H. O. Choi, J. H. Choi. (2013). Development and applicability evaluation of an emergent care management simulation practicum for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9(2), 228-240.  
DOI : /10.5977/jkasne.2013.19.2.228
- [14] I. O. Moon & G. W. Lee. (2010). The effect of satisfaction in major and career search efficacy on career search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6(1), 83-91.  
DOI : 10.5977/JKASNE.2010.16.1.083
- [15] E. A. Kim & K. S. Jang. (2012). Developing a prediction model regarding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to college lif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8(2), 312-332.  
DOI : 10.5977/jkasne.2012.18.2.312



[16] J. Y. Han. (2010). Nursing students' perceptions of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2(5)*, 2595-2607.

[17] K. J. Cho & H. S. Kang. (1984). Study on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14(2)*, 63-74. DOI : 10.4040/jnas.1984.14.2.63

[18] S. H. Lee, S. Y. Kim & J. A. Kim. (2004). Nursing students' image of nurse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0(2)*, 219-231.

[19] H. H. Cho & J. M. Kang. (2017). Factors Influencing Clinical Practice Burnout in Student Nurses.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3(2)*, 199-206. DOI: 10.4094/chnr.2017.23.2.199

[20] S. J. Park & B. J. Park. (2013). Relationship of clinical practice stress to clinical competence among one college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Stress Research, 21(4)*, 313-322.

[21] D. N. Oh, Y. R. Um, C. Kim, S. Ju, J. H. Choi & M. S. Park. (2016). The coping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in clinical practice: trying to be a meaningful presen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2(4)*, 430-440. DOI : 10.5977/jkasne.2016.22.4.430

[22] J. Kang & S. Yun. (2016). A grounded theory approach on nurses' experience with workplace bullying.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6(2)*, 226-237. DOI : 10.4040/jkan.2016.46.2.226

[23] K. Kim. (2014). Affecting factors on competence of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Stress Research, 22(2)*, 55-65. DOI : 10.11111/jkana.2015.21.2.154

[24] K. M. Lim & E. J. Jo. (2016). Influence of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nd Image of nurses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4)*, 556-566. DOI : 10.5762/KAIS.2016.17.4.556

[25] J. H. Kim, S. J. Kim, K. S. Bang, C. K. Koh, N. J. Lee & J. Y. Yu. (2012). Study on the Academic Achievements, Satisfaction, and Educational Demands of Nursing Students at a College of Nursing.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9(2)*, 127-135.

[26] E. H. Choi. (2009).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identity and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5(1)*, 15-21.  
DOI : 10.5977/JKASNE.2009.15.1.015

[27] H. W. Kwak & J. E. (2016). Rela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clinical stress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2)*, 147-155. DOI : 10.5762/KAIS.2016.17.2.147

## 저 자 소 개

신 승 옥(Seung-Ok Shin)

[정회원]



- 2004년 8월 : 조선대학교 보건학과 석사
- 2014년 8월 : 조선대학교 보건학과 박사
- 2016년 9월 ~ 현재 : 광주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근거중심 간호, 건강증진